

【原文】 全象喜行財地 而財神要旺

완전한 형상이라면 행운도 재성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재성도 왕해야 한다.

【原注】 三者爲全 有傷官而又有財也

主旺喜財旺 而不行官殺之地方可

전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다 있는 것을 말하는데 상관이 있고 또 재성도 있어야 한다.

일주가 왕하면 재성도 왕해야 좋은데 행운이 관살로 되지 말아야 한다.

제2강 형상과 체용 및 정신

【任氏曰】

三者爲全 非專論傷官與財也 傷官生財 固爲全矣 而官印相生 財官並見 豈非全乎 傷官生財

日主旺相 固宜財運 倘四柱比劫多見 財星被劫 官運必佳 傷官運更美 須觀局中意向爲是

日主旺 傷官輕 有印綬 喜財而不喜官 日主旺 財神輕 有比劫 喜官而不喜財 財官並見

日主旺相 喜財而不喜官 官印相生

日主休囚 喜印綬而不喜比劫 大凡論命 不可執一 須察全局之意向 日主之喜忌爲的

제2강 형상과 체용 및 정신

세 가지가 다 있는 것을 전상(全象)이라고 하는데, 단지 상관과 재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상관이 재성을 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관성과 인성이 상생하며 재성과 관성이 다 있는 것도 전상이라 할 수 있다.

상관생재를 하는데 일주가 왕상할 경우라면 재성의 행운이 가장 좋다.

가령 사주에 비겁이 너무 많아 재성이 겁탈을 당하고 있다면 행운이 관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좋고,

상관운이면 당연히 더욱 좋다. 그러므로 사주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일주가 왕하고 상관이 쇠약한데 인성이 있다면 재성을 좋아하지 관성을 좋아하지 않으며,

일주가 왕하고 재성이 쇠약한데 비겁도 있다면 관성을 좋아하지 재성을 좋아하지 않는다.

재성과 관성이 모두 있고 일주도 왕상하다면 재성을 좋아하지 관성을 좋아하지 않으며,

관성과 인성이 상생하고 일주가 휴수하다면 인성을 좋아하지 비겁을 좋아하지 않는다.

무릇 운명을 논함에 있어서 어느 한가지로 고정적으로 불변하게 보지 말고

반드시 전체의 상황을 살펴서 일주의 희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제2강 형상과 체용 및 정신

丁卯日元 生于季春 傷官生財 嫌其木盛土虛 書香難就
幸得其傷官化劫 使丙火無爭財之意 所以運至庚申辛酉
承先人之事業雖微 而自創之規模頗大 財發十餘萬

甲	丁	丙	戊
辰	卯	辰	申
壬	辛	庚	己
戌	酉	申	未
			午
			巳

일주 丁卯가 늦은 봄에 태어나 상관이 재성을 생하고 있지만
싫은 것은 木이 너무 왕성하여 土가 허약하다 보니 공부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다행히도 상관이 겁재를 化해 주어 丙火로 하여금 재성을 쟁탈하지 못하게 하니
庚申 辛酉의 행운에서 부친의 사업이 비록 규모는 적었지만
스스로 창업하여 그 규모를 아주 크게 넓히고 십 여만의 재물을 모았다.

제2장 형상과 체용 및 정신

此造火長夏天 支類南方 旺之極矣 火土傷官生財 格所嫌者 丁火羊刃透干
局中全無溼氣 刼刃肆逞 祖業無恒 父母早亡 幼遭孤苦 中受飢寒 六旬之前
運走東南木火之地 妻財子祿 一字無成 至丑運 北方溼土 晦火生金 暗會金局
從此得際遇 立業發財 至七旬又買妾 連生二子 及甲子癸亥 北方水地
獲利數萬 壽至九旬 諺云 有其運 必得其福 爲人豈可限量哉

丁	丙	辛	己		
酉	午	未	巳		
乙	丙	丁	戊	己	庚
丑	寅	卯	辰	巳	午

이 사주는 火가 여름에 태어났는데 지지가 남방을 이루고 있으니 극도로 왕하다.

火土로 상관이 재성을 생하고 있으나 싫은 것은 丁火의 겁재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고

사주에 습기라고는 전혀 없으니 겁재들이 더욱 날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조상이 남겨준 유산을 지키지 못하고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자 어려서부터 고생이 극심했으며 중년에는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렸고 나이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행운이 東南의 木火운이니 처, 재물, 자식, 관록 어느 하나 이루어지지 못했다. 丑土운에 들어서서 행운이 북방의 습토로 火를 흡수하여 金을 생해 金局이 되자 비로서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나 사업을 하여 재산을 벌게 되었다. 나이 70세에는 또 첩을 사서 연이어 아들 둘을 얻었고, 거기다가 甲子 癸亥 행운이 북방의 水로 되어 수만의 이익을 얻고 90세까지 살았다.

속담에 말하기를 ‘그런 운이 있으면 꼭 그런 복이 있다’고 하였는데 사람의 일이란 정말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原文】 形全者宜損其有餘 形缺者宜補其不足

형상이 완전하게 되어 있는 것은 그 나머지 부분을 손상시켜 주어야 하고,
형상이 부족한 것은 그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여 주어야 한다.

【原注】 如甲木生於寅卯辰月 丙火生於巳午未月 皆爲形全
戊土生於寅卯辰月 庚金生於巳午未月 皆爲形缺 餘倣此

예를 들어 甲木이 寅卯辰월에 태어났거나, 丙火가 巳午未월에 태어난 것을 형상이 완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戊土가 寅卯辰월에 태어났거나 庚金이 巳午未월에 태어난 것을 형상이 결핍되었다고 한다.

나머지도 이와 같이 논한다.

【任氏曰】

形全宜損 形缺宜補之說 卽子平旺則宜泄宜傷 衰則喜幫喜助之謂也
命書萬卷 總不外此二句 讀之直捷痛快 顯然明白 故人人得而知之
究之深奧異常 其中作用實有至理 庸俗祇知旺用洩傷 衰用幫助
以致吉凶顛倒 宜忌淆亂也 以餘論之 須將四字分用爲是 通變在一宜字

제2장 형상과 체용 및 정신

형상이 완전하게 되어 있는 것은 손상시켜 주는 것이 좋고

형상이 부족한 것은 보충하여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즉

자평명리에서 말하는 왕한 것은 식상으로 설기하거나 관성으로 손상시켜 주어야 하고,

쇠약한 것은 인성으로 생하거나 비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과 같다.

명리에 관한 서적이 수만 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두 마디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 구절을 읽어보면 단도 직입적이고 통쾌하며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게 되어 있으니 사람마다 모두 알고 있다.

그리고 연구해 보면 아주 심오한데 그 중에는 진실로 지극한 이치가 있다.

별 수 없는 사람들은 그저 왕하면 설기하고 극하여 주고, 쇠약하면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만 알면서

종종 길흉을 뒤바뀌게 판단하여 좋고 나쁜 것이 뒤범벅이 되어버린다.

내가 볼 때는 설기, 손상, 방조, 상생 이 네 가지를 잘 분별하여 사용해야 되는데

모든 통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의(宜)’ 라는 글자에 있다고 본다.

제2강 형상과 체용 및 정신

宜洩則洩之爲妙 宜傷則傷之有功 洩者食傷也 傷者官殺也 均是旺也

或洩之有害 而傷之有利 或洩之有利 而傷之有害 所以洩傷兩字 宜分而用之也

宜幫則幫之爲功 宜助則助之爲佳 幫者比劫也 助者印綬也 均是衰也

或幫之則凶 而助之則吉 或幫之則吉 而助之則凶 所以幫助兩字 亦宜分而用之也

如日主旺相 柱中財官無氣 洩之則官星有損 傷則去比劫之有餘

補官星之不足 所謂傷之有利 而洩之有害也

제2강 형상과 체용 및 정신

설기하는 것이 마땅하다(宜洩)는 말은 설기하여 주는 것이 좋고,
손상하는 것이 마땅하다(宜傷)는 말은 손상해 주어야 좋은데
설기하는 것은 식신과 상관이고, 손상하는 것은 정관과 편관이다.

모두 다 왕할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인데,
어떤 때는 식상으로 설기하는 것이 해롭고 도리어 관성으로 손상하는 것이 이로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식상으로 설기하는 것이 유리하고 관성으로 손상하면 도리어 해로울 때가 있다.

그러므로 설기하는 것과 손상하는 두 글자는 잘 분별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
도와주어야 할 때(宜幫)는 도와주는 것이 공이 되고, 생하여 주어야 할 때(宜助)는 생하여 주어야 좋은데,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비견과 겁재이고, 생하여 준다고 하는 것은 인성이다.

모두 다 쇠약할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인데,
어떤 때는 비겁으로 도와주면 흉한데 인성으로 생하여 주면 도리어 길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비겁으로 도와주면 길하나 인성으로 생하여 주면 도리어 흉할 때가 있다.
그러므로 도와준다고 하는 것과 생하여 준다는 것도 역시 분별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2강 형상과 체용 및 정신

日主旺相 柱中財官不見 滿局比劫 傷之則激而有害
不若洩之以順其氣勢 所謂傷之有害 而洩之有利也

日主衰弱 柱中財星重疊 印綬助之反壞 幫則去財星之有餘
補日主之不足 所以幫之則吉 而助之則凶也

日主衰弱 柱中官殺交加 滿盤殺勢 幫之恐反剋無情
不若助之以化其強暴 所以幫之則凶 而助之則吉也

제2강 형상과 체용 및 정신

예를 들어 日主가 왕상하고 사주에 재성과 관성이 무력한 상황에서

(식상으로) 설기하면 관성은 손상을 받게 되나 (관살로) 손상하게 되면 비겁이 많은 것도 억제하면서 관성의 부족한 것도 보충하게 되니 이것이 이른바 손상하면 이롭고 설기하면 도리어 해롭다라고 하는 것이다.

일주가 왕상한데 사주에 관성과 재성은 보이지 않고 비겁이 가득하다고 할 때

(관살로) 손상하게 되면 오히려 비겁을 자극하여 격렬해져서 해로우니

(식상으로) 설기하여 그 기세에 순종하여 따르도록 하는 것이 더 좋게되니

이것이 이른바 손상하여 주면 해롭고 설기하여 주면 이롭다고 하는 것이다.

일주가 쇠약한데 사주에 재성이 가득할 때 인성으로 생하여 주면 도리어 나쁘게 되지만

비겁으로 도와주게 되면 재성의 넘치는 것을 제어하고 일주의 부족한 기운도 보충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도와주면 길하나 생하여 주면 도리어 흉하다고 하는 것이다.

일주가 쇠약한데 사주에 관살이 가득하여 온 사주에 살의 세력이 가득하다면

비겁으로 도와주게 되면 도리어 극을 받아서 무정하게 되므로 인성으로 생하여 살의 난폭한 기운을 化하여

주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이른바 도와주면 흉하고 생하여 주는 것이 도리어 길하다고 하는 것이다.

제2강 형상과 체용 및 정신

此補前人所未發之言也 至於木生寅卯辰月 火生巳午未月爲形全 亦偏論也

如木生寅卯辰月 干露庚辛 支藏申酉 莫非仍作全形而損之乎

火生巳午未月 干透壬癸 支藏亥子 莫非仍作形全而損之乎

土生于寅卯辰月形缺 干丙丁而支巳午 莫非仍作缺形而補之乎

金生於巳午未月 干戊己而支申酉 莫非亦作缺形而補之乎

凡此須究其旺中變弱 弱中變旺之理 不可執一而論

是以實似所當損者 而損之反有害 實似所當補者 而補之反無功 須詳察焉

제2강 형상과 체용 및 정신

이상의 것은 옛날사람들의 말에 없었던 것을 내가 보충한 것이다. 그리고 木이 寅卯辰월에 태어나고

火가 巳午未월에 태어난 것을 형상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도 역시 올바른 말이 아니다.

예를 들어 木이 寅卯辰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천간에 庚辛金이 투출되어 있고 지지에 申酉金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을 여전히 형상이 완전하니 손상해야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또 火가 巳午未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천간에 壬癸水가 투출되어 있고 지지에 亥子水가 있다고 할 때

이것을 여전히 형상이 완전하니 손상해야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土가 寅卯辰월에 태어나 형상이 결핍되어 있다고 할 때 천간에 丙丁火가 있고 지지에 巳午火가 있는데도

또한 형상이 부족한 것이니 보충하여 주어야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金이 巳午未월에 태어났는데 천간에 戊己土가 있고 지지에 申酉金이 있을 때도

또한 형상이 부족한 것이니 보충하여 주어야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무릇 이것에 대하여 연구하다보면 왕한 가운데에서도 쇠약하게 변하거나

쇠약한 가운데에서도 왕하게 변화되는 이치를 논해야 하지 한가지 이론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실은 마땅히 손상하여 주어야 할 것 같아 손상하여 주면 도리어 해롭고, 실로 마땅히 보충하여 주어야

할 것 같아 보충하여 주면 도리어 아무런 역할도 없는 것이 있으니 반드시 상세히 잘 살펴보아야 한다.

제2강 형상과 체용 및 정신

此秋金銳銳 官星虛脫 不能相制 財星臨絕 何暇生官 初運土金
晦火生金 刑傷破耗 無所不見
丁未 丙午 助起官星 家業鼎新 乙巳晚景優遊 所謂傷之有功也

이 사주는 가을의 金이 대단히 단단하고 날카로운데,
관성이 허탈하여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재성이 절지에 있다보니 관성을 도와줄 여유가 없다.
초년운에 土金이 火를 어둡게 하고 金을 생조하니 재산 손실과 온갖 고통이 극심해서 볼 수가 없었지만
丁未 丙午 행운에서 관성을 도와주니 다시 가업이 흥성해지고 乙巳운 말년에도 유유한 세월을 보냈다.
이것이 이른바 ‘관성으로 손상시켜 주는 것이 좋다’ 라고 하는 것이다.

【原文】 從得眞者只論從 從神又有吉和凶

종(從)에서 진종(眞從)이면 단지 종으로 논한다.

종은 길한 것도 있고 흉한 것도 있다.

